

기초 어법 개념 정리

Part 1.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정리

*명사

1. 이것이 핵심이다!-명사는 말 그대로 모든 사물, 사람 등의 이름을 뜻합니다. 간혹 문법 포기한 친구들 중에 명사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고 1 때까지 많이 헷갈렸었어요. 기죽지 마세요! 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시들을 보면서 직접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이번 6월 평가원 지문들에 사용된 명사들을 보도록 하죠.

2. 예시-Deseada, island, name, Columbus, voyage, the part, the south, the Indians.
어때요? 다들 형태는 달라도 모두 누군가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voyage, the part 같은 명사는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뒤에서 설명할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는 명사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두셔도 무방합니다. 명사부터 너무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일단 쭉 전진해 보세요. 모든 품사 정리가 끝나고 다시 이 글을 보면 새롭게 보일거예요!

3. 이것만은 알고 가자!

1) 명사의 역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뒤에서 문장의 어순을 정리하고 나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오늘은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구나 정도만 들어 놓으시길. 간단히 예시 하나씩만 보여 드립니다.

-주어: A book is on the desk. (전치사 on의 목적어 역시 명사네요!)

-목적어: I love this music.

-보어: I want to be a teacher.

2)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 명사와 관련해서는 이 명사가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유식한 말을 썼지만 가산 명사는 가능할 '가'에 셈할 '산'을 더해 셀 수 있는 명사라는 뜻입니다. 불가산 명사는 아니 '불'자가 붙었으니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뜻이겠죠. 가산 명사는 단수형으로 쓰이거나 복수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형, 복수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 수능에 출제되는 few/little 구분 문제나 another/other 구분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부 문법책들을 보면 추상 명사니 집합 명사니 고유 명사니 여러분들의 기를 팍팍 죽이는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러니 책을 덮을 수 밖에. 명사와 관련해서는 가산, 불가산 명사 구분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대명사

1. 이것이 핵심이다!-대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종류에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의문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벅차 보이나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대명사는 구체적으로 이 대명사가 인칭대명사에 속하나 지시대명사에 속하나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 할 줄 모르셔도 되요. 다만 어떤 명사를 보고 이게 대명사구나 느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자세하고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략한 설명 후 예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2. 예시&이것만은 알고가자!-

1)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I, you, he, she, it, we, they, me, you, him, her, it, us, them, my, your, his, her, its, our, their 등이 있습니다. 어때요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위에서 나열된 것들 중 I~they까지는 주어로 쓰이는 녀석들, me~them까지는 목적어로 쓰이는 녀석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남은 my~their까지는 주어나 목적어로는 쓰이지 못하고 대신 명사 앞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쓰입니다. 각각 예문 하나씩 보고 가죠.

주어-I like to study English. (동사 study의 목적어는 명사!)

목적어-I will make it. (주어 역시 대명사!)

소유격-Your picture (너의 사진)

2) 지시대명사: 국어사전에 지시대명사의 개념을 찾아보면 ‘어떤 사물이나 처소 따위를 이르는 대명사’라고 나와있네요. 너무 어렵죠.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리죠. this, these, that, those.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것, 이것들, 저것, 저것들 이게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어때요, 쉽죠.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만 가져가기로 하고 이외에 복잡한 표현들은 4인 4색 본 교재에서 함께 하기로 해요!

3) 부정대명사: 아니 ‘불’에 정할 ‘정’자가 더해져서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는 뜻입니다. 부정대명사 역시 말로 하면 딱딱하고 어려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something, anything, one, other, another, some, all. 어때요? 한 번씩 들어본 명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명사구나 정도 느끼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용법들은 역시 4인 4색에서 함께 하죠.

4) 의문대명사: who, what, which 등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뜻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표현으로 의문부사 when, where, why, how 등이 있죠. 의문대명사와 의문부사를 합쳐 의문사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 관계대명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따로 빼서 설명하기로 하죠! 지금까지의 구성과는 약간 달리 한 번에 예시를 섞어 설명 드린 후 마지막에 도표를 통해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관계대명사

1. 이것이 핵심이다!-관계대명사는 문장 두 개를 이어주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녀석들을 말합니다. 말이 너무 딱딱하죠? 바로 예시를 봅시다.

‘I love a girl.’이라는 문장과 ‘A girl is so beautiful.’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보죠. 공통되는 부분인 ‘a girl’을 없애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이자 문장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o를 쓰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I love a girl who is so beautiful.’ 여기서 who가 대신하고 있는 a girl을 관계대명사 who의 앞에 나온 말, 즉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무의식중에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격이라는 말은 ‘주어처럼 쓰이는’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처럼 쓰이는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대명사’인 셈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처럼 쓰이는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대명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죠.

I love a girl. + I want to meet her. = I love a girl whom I want to meet.

관계대명사의 생성에 대해 이처럼 빈약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관식 시험이 아닌 객관식 문제를 풀죠. 따라서 여러분은 주어진 문장들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게 아니라, 거꾸로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앗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빠졌다고 뭐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초보자에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소 어려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최근 5개년 기출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다면 그 때 특별히 설명해드리죠!

지금까지는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사물의 경우는 주격, 목적격 모두 which또는 that을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that은 사람, 사물 모두 쓸 수 있는 만능이죠.

마지막으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hat은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이면서 선행사를 포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I love to eat steaks. + Steaks are too expensive

=I love to eat steaks which are too expensive.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사용)

=I love to eat what are too expensive. (선행사 steaks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사용)

이처럼 what이 쓰이면 what이 이어주는 앞 문장과 뒷 문장 모두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what을 흔히 the thing which로 풀어서 쓰는데요, 여기서 the thing도 명사고 which도 대명사죠. 그러니 부족한 부분이 두 군데 있어서 명사와 대명사가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해야겠죠!

이제껏 설명드린 것들을 표로 한 번 정리해봅시다! 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선행사	주격	목적격
사람	who, that	who(m), that
사물	which, that	which, t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what

지금까지 수능에 출제된 포인트를 살펴보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아직 설명 안했죠. 뒤에 부사 편에서 보기로 하죠!)를 구분하는 문제,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혹 관계대명사의 격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으니 조심!

*형용사

1. 이것이 핵심이다!-형용사는 명사,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며준다는 말을 이제 부터는 '수식한다'라는 고급용어로 사용하기로 해요. 가끔 문법책에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을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5개년 간 기출 문제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 예시- beautiful scenery(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new one(대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I'm sleepy(2형식 문장에서 주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

I will make you happy(5형식 문장에서 동사 make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

3. 이것만은 알고 가자-형용사가 수능에서 출제될 때는 주로 보어로 형용사가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해 쓰입니다. 나중에 형식을 공부하고 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2형식 동사는 주격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5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이런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이 형용사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부사인데 문법상 형용사인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출제자들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러나 기본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부사는 보어로 쓰일 수 없습니다. never!

*부사

1. 이것이 핵심이다!-부사는 형용사보다 더 많은 녀석들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며 심지어 부사끼리도 서로를 수식할 수 있구요, 더 나아가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책을 보면 부사의 종류를 상세히 나누어 놓았는데요, 당연히 몰라도 되는 겁니다. 우린 문법 학자 지망생이 아니잖아요! 다만, 빈도부사 정도는 알아두세요. always, usually, sometimes, never 뭐 이런 것들 들어 보셨죠. 실제 수능에서도 오답 선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활용법은 4인 4색 본교재에서 함께 하기로 해요!

2. 예시- I walked quickly.(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He is very handsome.(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almost always(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Fortunately, I won the game.(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I always eat breakfast.(빈도부사 always)

3. 이것만은 알고 가자-부사는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사는 절대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보어! 그래서 출제자들은 형용사와 부사를 헷갈리게 섞어 놓곤 하죠. 그러나 아무리 해석상으로 부사가 올 것 같더라도 문법상으로는 형용사만이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또한 수능에서는 빈도부사의 위치가 오답 선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활용법은 본교재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계부사

1. 이것이 핵심이다!-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함께 다루려다 관계대명사의 설명이 너무 길어져 부득이하게 뒤로 미루게 되었던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역시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생성 과정보다는,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관계부사가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를 설명했을 때처럼 개념적으로 접근해보면 관계부사는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부사라는 뜻이죠. 관계부사는 ‘부사’이니까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와 달리 관계부사가 이끄는 뒷 문장은 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대명사’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는 것, 기억나죠? 관계대명사에는 선행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4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when, 장소를 나타내는 where, 이유를 나타내는 why, 방법을 나타내는 how. 이 중 how는 다소 쓰임이 복잡해요. 일단 나머지 셋의 예문을 보며 관계부사를 느껴보시고 how의 쓰임은 4인4색 본문에서 함께 하도록 합시다! 각각의 예시를 보죠.

When-I remembered the time when I was young.(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 사용)

Where-This is the city where I live.(장소를 나타내는 where이 사용)

Why-I couldn't understand why he said like that.(이유를 나타내는 why가 사용)

2. 이것만은 알고 가자-실제 수능에서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옵니다. 또한 밑줄형 어법에서는 관계부사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것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묻죠. 기본에만 충실하면 쉽죠. 관계‘부사’니까 이끄는 문장이 완전해야 한다는거! 관계부사가 무엇인지 느끼셨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실전적인 문제들은 4인4색 본교재를 통해 학습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다양한 품사들을 정리해 보았죠. 이 글에 대해서는 분명 평가가 갈릴 것입니다. 너무 쉽다, 심화된 설명이 부족하다는 평과 이것도 너무 어렵다, 더 자세히 해달라는 평이 나오겠죠. 그러나 저도 한 자 한 자 고민해서 쓴 것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1)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2) 우리 본교재 4인4색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로 서술해야 하는가.

이 2가지 질문에 맞추어 완벽히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충실히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다 궁금증이 생기거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생기면 주저 말고 쪽지 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